

Ⅵ. “주 5일 근무제 ” 시대의 교역자 신앙·수행에 대한 대책

성정진 위원*

(수위단회 교회사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시작의 글.....	33
2. 대책 하나, 교무의 날 활용방안.....	34
3. 대책 둘, 공생활의 정착화.....	37
4. 대책 셋, 기관 교역자 교당 교화 인력으로 흡수.....	38

1. 시작의 글

21C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특성화만이 살길이라는 경영전략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신행생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리라 믿으며 종교마다 열린 프로그램 개발에 머리를 모으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유와 재창조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혹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역기능을 호소하기도 하나,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매우 희망적인 시각이 높다.

이에 우리 교역자도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이 요구된다. 24시간 교회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교역자에 있어서도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탄력적인 방법으로 교역자의 생활에도

* 성정진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교회사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화정교당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변화가 야기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심신간에 누적된 피로를 풀고, 구태의연한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본래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계기로 교역자 신앙수행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본다.

대책 하나, 교무의 날 활용방안

출가 교역자의 특성은 출가자로서 성불제종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 수행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교무는 신앙과 수행에 있어 재가교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번잡하고 막중한 잡무에 묻혀 출가자의 본의와는 다르게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본다. 일상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교무는 지치고 고갈된 모습으로 역할과 책임이 전도된 상태로 누적된 피로 속에 바쁘게 비칠 뿐 여유를 찾기가 힘들다. 이에 우리는 교무의 날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교무의 날은 유일한 교역자의 날이요,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교역자 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다. 교무의 날을 십분 활용하여 신앙 수행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재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보자.

◎ 방안 : “교무의 날” 을 적극 활용하자.

매주 월요일을 교무의 날로 정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오늘날 교무의 날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나? 한번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ㄱ.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날인가?
- ㄴ. 신앙심 고취와 수행의 시간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 ㄷ. 교화발전을 위한 연구 시간으로 십분 활용되고 있는가?
- ㄹ. 삼대력 양성을 위한 공부의 날인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에 교무의 날은 사장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교무의 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교무의 날이 살아 움직일 때 교역자는 힘이 나고, 교역자가 힘이 솟을 때 교단은 살아 움직이고 그 속에서 대중사님 교법이 두루 퍼져나갈

것이다.

◎ 구체적 방안 ◎

1. 각 교구(지역)훈련원 이용 안

전국 곳곳에는 우리 교단의 훈련원이 있다. 훈련원 이용은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주말)를 제외하고는 이용 정도가 낮다. 이를 놓고 볼 때 "교무의 날"인 월요일은 훈련원 사용이 용이할 수도 있다. 이에 훈련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자 신앙수행의 체험장으로, 혹은 자아실현의 장, 나만을 위한 공간, 영성함양의 소중한 기회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선행 요건 및 방향

- 1)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훈련원에 입원하기전에 욕구 조사를 한다 — 자기성장을 위한 부분.

예1)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 채울 수 있는 부분.

예2) 11과목을 프로그램화한 분반(심고, 기도 염불, 선, 회화, 의두 성리, 정전 등)

예3) 마음공부반, 산행반, 기도반, 사경반, 휴식반, 명상반, 영화감상, 건강 등

- 2) 계획, 고정된 틀, 구속, 강요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욕구조사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 선택을 하도록 한다.(욕구충족)

- 3) 실제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바를 나누어 신앙, 수행체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4) 프로그램 참여가 자의에 의한 것인 만큼, 진행 역시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교역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 훈련요원 가능)

- 5) 경비 문제는 대종사께서 "선원에 입선할 때는 미리 선비를 준비하라" 하신 만큼 각자가 훈련비를 준비하여 입원하여야 한다.

- 6) 훈련 11과목을 중심으로 삼학병진의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장이 된다.

욕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보면 교역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참여도 적극적이며, 더욱 더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가난한 부분을 채우고,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교역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된다고 보면 새롭게 교육되어지는 재교육의 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교무의 날이 된다.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흡족한 시간,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3. 교무의 날을 활용한 기대 효과

- 1) 교역자가 힘이 난다.(건강회복)
- 2)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 3) 교역자 역량이 계발된다.(재교육 - 신앙 수행의 고취)
- 4) 교단은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 5) 교무는 교도의 모범이 될 것이다.
- 6) 교도는 공부하는 교무를 존경할 것이다.
- 7) 교무 상호간에 신앙 수행의견이 교환되어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으며, 동지애가 생길 수도 있다. 아울러 응집력 있는 교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훈련원 활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

- 1) 움직이는 훈련원이 된다.
- 2) 훈련원 홍보로 인한 훈련 유치가능
- 3) 훈련원 운영이 원활해진다.
- 4) 청결한 도량이 된다.

5. 교단에 대한 바람

- 1) 매주 월요일이 “교무의 날”임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천도제, 제사, 열반)를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의 시간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역자 훈련의 날, 재교육 실시의 날로 공식화하자.
- 2) 교무로 하여금 “교무의 날”을 자기 영성 함양의 날, 재충전의 기회, 자기 신앙 수행에 전력하는 날임을 인정해 주자.
- 3) 대대적인 신앙수행 운동의 날로 교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도록 해주자.(교육비 문제 공식화 등)

그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교무의 날은 묵은 일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한 세상 곳곳에서는 자기 계발의 장으로 운동 및 어학, 취미활동,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 등으로 욕구 조사되어 마음 부풀어 힘나게 살고 있다.

이때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지도자가 지나간 일 처리의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느 곳에 정해져 있을 것인가. 주 5일 근무제를 운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이미 교무의 날이 있었다. 이 교무의 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단적으로 전 교역자가 신앙수행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무의 날, 이는 출가자의 전공인 신앙수행을 촉구하는 날이어야 한다.

대책 둘, 공동생활의 정착화

신앙 수행은 절대 긴 시간 혼자 하기가 힘이 든다. 교단은 정책적으로 교역자 공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역자가 공동생활을 하므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방안 : 1) 전문화, 특성화시킨 교화 기관의 교역자의 공동생활

예) 마음공부, 선방, 문화교실, 다도 등

2) 기관 교역자들의 지역별 공동생활

예) 총부, 학교, 교구사무국, 복지관, 기타

3) 교당 교역자 공동생활

예) 인접교당

공동생활은 교역자의 신앙,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품도 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닌 교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단행해 볼 필요가 있다.

대책 셋, 기관 교역자 교당 교화 인력으로 흡수

전국에는 교역자 1명이 공부하며, 교화하고, 운영해나가는 320여개 교당이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청소년 교화를 운운하면서도 교역자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청소년 예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 예회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총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역자 (전체교역자의 1/3 이상)가 교당교화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의 교화는 물론 교역자 개개인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그렇게 되고 보면 교역자 각자의 신앙 수행은 더욱 챙겨질 것이요, 교당 교화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교당 교화의 대안으로도 전문 분야의 교역자는 당당히 전문 지식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주 5일 근무제는 기관이나 교당 교역자 상호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방안 : 교화 인력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자

총부나 교구 산하에 교화인력 지원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별로 해당기관의 형편에 맞게 둘 수 있겠다.

ㄱ.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한다.

ㄴ. 등록을 마친 교역자는 자의든 타의든 교당 교화에 지원한다.

예) 예회, 훈련요원, 문화강좌 강사, 교리훈련 강사, 마음공부강사 등

ㄷ. 전문 인력으로 직·간접적으로 교당 교화에 일익을 담당한다.

ㄹ. 준비하는 교역자는 신앙 수행에 더욱 철저해진다.

ㄱ. 교당·기관 교역자 상호간의 상황을 알면, 유대관계는 더욱 원활해진다.

ㄴ. 교당 교화가 활성화되고, 교역자 상호간에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된다.

신앙과 수행은 우리 교역자의 몫이다.

교화! 이는 전 교역자의 역할과 사명이다. 교당 하나하나를 우리 모두의 교당이다. 개 교당의 개념도 이제 넘어서야 한다. 전교역자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